

DAIL COMMUNITY

다시 한번, 밥퍼



밥퍼 밥퍼나눔운동
Babfor Babfor Sharing Campaign

dail



30년을 돌아보고 30년을 내다보며

2018년은 다일공동체가 탄생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겪었던 많은 은혜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니 일체가 은혜요 감사 뿐입니다. 다시 한 번 30년이라는 세월을 눈 앞에 두고 그 뜻과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묵상하다보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서른살이었던 것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다일의 사역을 찬찬히 돌아보며 이제는 다일공동체가 새로운 장년의 삶, 공동체가 속한 사회와 이웃의 삶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책임 있는 단체로 성숙해 가라는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30주년을 맞는 올해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일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30년의 사역에 걸맞는 '지속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아 다일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을 반석위에서 세대를 거듭해서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다일공동체 전 가족이 힘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네팔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비전센터를 세우는 일, 그리고 중국 다일공동체의 경우처럼 현지인들에게 맡길 수 있는 사역을 과감히 이양하는 일, 해외 빈민촌에 밥퍼센터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 등 등이 바로 이런 지속성을 확보하여 다가오는 30년의 사역을 이어가려는 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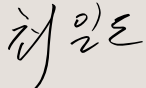
두 번째는 30년의 빈민선교사역에 걸맞는 '전문성'을 담보해가는 작업일 것입니다. 해외사역을 전적으로 전담할 '사단법인 데일리 다일'의 창립과 발맞추어 다일복지재단도 전문적인 복지재단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역의 30년 동안 이어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상생과 한 영혼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영성, 문화사역) 밥이 평화다!를 외치며 밥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운동(밥피스메이커)을 다음세대까지 확실하게 이어가는 일 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의 다일공동체 사역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만이 드러났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새로운 30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이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고백 드립니다.

그 어떤 동역보다 더 귀한 동역은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 믿으며 다시 한 번 다일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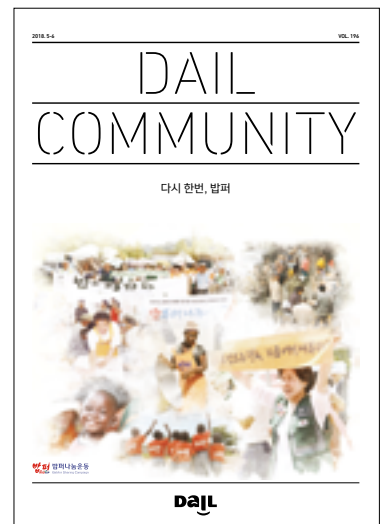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하!

작은형제  올림

CONTENTS

Vol. 196

02	30주년 특집 I 다시 한번 밥퍼!
04	30주년 특집 II 행복, 보람, 나눔을 실천하는 마이다스 IT
06	함께하는 길 한 마음으로 사랑을 모아 전합니다
08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을 담아 전한 '\$100의 기적'
10	분원소식
10	중국
12	캄보디아
14	베트남
16	필리핀
18	네팔
20	우간다
22	탄자니아
24	미국
28	밥퍼나눔운동본부
30	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33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6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후원 명단
38	후원 안내
39	후원 신청서
40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cover story

지난 삼십년간 이어져온 밥퍼나눔운동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청량리에서 새로운 밥퍼나눔운동의 출발을 시작하려합니다. 다시 한번, 밥퍼!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다솜, 박찬미, 이순선 디자인·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8년 5월 발행처 | 다일복지재단 주소 |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다시 한번 밥퍼!



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밥퍼

30년전 1988년 11월의 차디찬 어느날, 어둑어둑 하던 청량리역 광장을 지나던 최일도 목사가 배가 고파 쓰러진 노인 한분께 설렁탕 한그릇을 대접한 일로 밥퍼나눔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경찰같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려운 국민을 돕는 일이지 평범한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건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젊은 최일도 목사의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에 대한 지극히 작은 불씨같은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치며 한그릇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삼십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날마다 진지를 지어 가난한 우리 이웃들께 대접하였고 어느새 2017년 한국 포함 10개국 17개 분원 포함 천만 그릇 돌파라는 놀라운 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 한 귀퉁이에서 라면을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밥퍼나눔운동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우간다까지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즈음의 대한민국 복지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삼십년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또다른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 눈앞에 닥쳐온 일이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밥퍼의 처음에도 독거노인들은 밥상공동체 가족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있습니다. 오히려 노숙인에 대한 여러 시설들과 사회적 장치들이 많이 안정되고 발전한 반면 노인문제는 오히려 전 인구 대비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밥퍼나눔운동본부는 노인 학대방지센터, 종합 노인보호 기관으로서의 면면을 갖추어 사회적 문제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나눔과 섬김의 길을 실천하도록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노인이 될수록 가난해지는 현실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한국의 상황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영위할수 있었던 중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러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경우 오히려 보호 받지 못하고 가난에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간의 사회적 대립뿐 아니라 이제는 노인과 청년층의 연령간 사회 문화적 간극으로 인해 노인 혐오라는 새로운 사회적인 갈등이 만연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일차적으로 지속적인 노인 영양공급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 확보와 노인 학대 방지 운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존중하고 존중 받는 서로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함이 마땅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단지 수동적 대상으로서 보호받는 노인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소망합니다. 이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이 하나의 모토를 지나 이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마음 다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밥퍼!



② 날마다 밥퍼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르신



① 마이다스아이티 나눔위원회

행복, 보람, 나눔을 실천하는 마이다스 IT

마이다스아이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나 근무하는 오피스 빌딩, 공장과 같은 건설 구조물들이 지진의 큰 흔들림, 또는 태풍의 강한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을 대비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시공/제조되기 전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와 좋은 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inJOB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6년에 조선일보에서 취업준비생 3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입사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을 묻는 설문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마이다스아이

티를 지원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높은 연봉 및 복지수준이라는 항목은 2위, 회사의 경영철학이라고 답한 사람이 85%로 1위였습니다. 사람 제대로 잘 키우는 회사, 그 곳이 바로 마이다스아이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핵심가치를 행복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이다스아이티의 핵심가치는 행복, 보람, 나눔입니다. 마이다스의 핵심가치와 경영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명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가치를 세상의 효용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때 얻는 것은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가치는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세상을 향해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나눔과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은 나눔데이로 독거노인 분들과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독거 노인분들께 따뜻한 한끼를 책임질 수 있는 도시락을 마이다스 사내식당의 셰프님들이 만드시고 구성원들이 배달을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장애우들의 수영연습을 돕는 수영맞춤교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목욕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의 목욕을 돕는 목욕봉사, 전사의 구성원들이 1년에 두번 전사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1km에 5천원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적립된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포인트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환우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부금은 아프리카에 백신과 모기장을 보내고, 인도지역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 희망우물을 만드는데 기부하고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을 알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이다스아이티와 다일복지재단의 인연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내 구성원들이 밥퍼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왔는데요. 사실, 근래에는 마이다스아이티의 나눔활동 범위가 지역사회로 좁혀지면서 직접적인 다일복지재단과의 활동은 적었는데요. 2018년부터 다일복지재단과 함께 나눔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마이다스 행복재단의 이사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주고 계신 박상원 교수님께서 다일복지재단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마이다스와 다일복지재단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답니다!

탄자니아 다일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전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 설립에 동참할 수 있게되어 영광입니다. 비전센터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탄자니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전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그들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이다스아이티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마이다스아이티의 미션은 “우리의 기술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기존 사업인 과학기술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보급과 더불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중심경영의 솔루션을 세상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좋은 인재와 좋은 기업이 만나 세상의 행복총량을 늘리기 위하여 midas 채용 솔루션 ‘inAIR’은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금, 판매, 생산, 유통의 물적 자본 중심의 경영을 탈피하여 사람중심경영으로 세계1위 기업을 지키고 있는 마이다스아이티의 경영 체계들을 녹인 ERP솔루션 ‘inHR’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추구하고자 최대한 많은 이웃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눔 예정입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이다스아이티, 지켜봐주세요!

다일복지재단과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일복지재단의 나눔활동들은 이웃들의 생활 속에서 자립과 새 삶의 시작을 돕는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많은 이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의 꽃을 피울 수 있길 바랍니다^_^

답변자: 마이다스아이티 행복재단 박진호



② 다일 비전센터 건립 후원금 전달식
최일도 이사장, 박상원 홍보대사, 이형우 대표



① 행복한 바오밥 방학식

보드게임 회사 '행복한 바오밥'

한 마음으로 사랑을 모아 전합니다

'행복한 바오밥'은 어떤 회사인가요?

'행복한 바오밥'은 보드게임 개발과 유통을 같이하고 있는 보드게임 회사입니다. 보드게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분야이지만, 사실 넓게 보면 장기, 바둑도 보드게임의 일종입니다. 보드게임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놀이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점에서 PC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과 같은 다른 게임들과는 차별화 됩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가 생존력을 가지고 많은 동식물들에게 그늘과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저희 제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소비자분들이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행복한 바오밥'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육용 보드게임을 만들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2004년도쯤에 우리나라에 한참 보드게임 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보드게임들은 해외 제품들의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수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보드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성상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드게임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행복한 바오밥'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교육용 보드게임 전문회사로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요. 특히 유아, 초등, 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방과 후나 학원에서 교육적 교구로서도 저희 보드게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복한바오밥만의 강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 보드게임 시장은 아직까지는 작은 편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보드게임 회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은 저희는 개발과 유통 뿐 아니라 퍼블리싱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퍼블리싱이란 개인의 아이디어를 구입해서 상품화 하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개발자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보드게임회사는 저희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교육용 보드게임이라는 특화된 분야에서는 저희 회사에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일복지재단에 특별한 후원금을 전달해주셨는데요,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일복지재단에 기부하게 되셨나요?

저희 회사는 일 년에 두 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전사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 항상 방학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애장품 경매입니다. 각자 가지고 온 애장품으로 즉흥 경매를 하고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일대일 매칭으로 회사에서 지원한 후원금을 더하여 모아진 후원금을 외부에 전달합니다. 직원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직접 기부를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어떤 곳에 후원을 하면 좋을지 매년 투표를 거치는데요, 10군데의 경쟁한 후보들 중에서 다일복지재단이 선정되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밥퍼나눔운동에 대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한 직원이 후보로 추천했는데요,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노숙인들을 돕고 있는 기관이어서 더욱 많은 직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다른 곳들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잘 사용될 수 있는 탄탄한 재단이라는 신뢰가 들어 후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바오밥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행복한 바오밥’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보드게임의 가장 큰 적은 야근과 음주문화 인데요,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사람들이 교체하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점점 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결



② 생각의 즐거움, 행복한바오밥

국 보드게임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표님이 기부나 봉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나눔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저희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수록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퍼’는 워낙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일복지재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무료급식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재단이 커져야 좋은 사회가 되니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답변자: 김명신 부사장



❶ 황일규, 이은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네팔 다일공동체 어린이들

마음을 담아 전한 ‘\$100의 기적’

황일규, 이은원 부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매년 3월 4일이 되면 밥퍼를 방문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있습니다. 황일규·이은원 부부는 자원봉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로 결혼기념일마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섬기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는 소중하고 뜻 깊은 날을 기념하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자원봉사자로 물심양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후원에 동참하였는데요, 그 특별한 후원이 이루어졌던 그 날로 함께 가보시겠어요?

‘따르릉~’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에 따뜻한 소식을 알리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이은원 후원회원님께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처분하시려다가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게시된 ‘100불의 기적’ 캠페인이 떠올라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주신 겁니다.

“100불이면 300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활기찬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100불의 기적’이란 밥퍼(무료 급식)가 진행되고 있는 다일공동체 해외 분원에 100불(한화 약 11만원)을 후원함으로써 배고픈 아이들에게 귀한 한 끼 식사를 선물하는 캠페인인데요, 매일 3~400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다일의 귀한 사역입니다.

황일규·이은원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100불의 기적’

후원을 통해 네팔다일공동체는 ‘쌀’과 네팔 사람들의 주식인 ‘달’(네팔 전통방식으로 구워진 빵)을 구입하여 네팔 아이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나눔 이후, 네팔다일공동체에서 보내온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 머리 위 하트를 만들어 감사인사를 전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전달하여 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며 ‘100불의 기적’ 캠페인을 널리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이신 이은원 후원회원님의 열정적인 홍보 덕분에 이은원 후원회원님의 지인 분들께서도 뜻을 모아 ‘100불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은원 후원회원님과 김은전, 차성자, 김정례, 최선희님 4명으로 이루어진 루디아 신우회 분들이신데요,

루디아 신우회는 12년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성경공부를 하는 학습지 교사 모임입니다. 계속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공부와 교제로 꾸준히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눔과 섬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신 루디아 신우

회의 귀한 후원을 통해, 이번에는 캄보디아다일공동체의 아이들이 맛있는 한 끼와 사랑을 선물 받았습시다.

현재 황일규·이은원 부부는 강북구 수유동의 ‘그녀의 꿈’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은 카페는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요즘 부부의 꿈은 ‘100불의 기적’ 캠페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는 귀한 나눔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황일규, 이은원 두 분 내외의 꿈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일의 모든 가족들도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간다, 탄자니아, 필리핀에도 100불의 기적을 선물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② 루디아 신우회 '100불의 기적' 동참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어린이들
③ 루디아 신우회 밥퍼나눔 사진 ④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밥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황일규, 이은원 부부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현장이야기

중국 다일공동체가 있는 훈춘은 겨울이 길고 봄,여름,가을이 짧은곳입니다. 3월이 끝나가는 이제서야 기온이 겨우 영상으로 올라가며 봄기운이 올라옵니다. 두만강도 이제 다 녹아가는데 작은 강줄기를 곁에 두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도시 훈춘의 저희들의 마음은 아직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종교법, 노동법등으로 활동과 체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중국 훈춘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고 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때, 지금 여기를 사는 것! 더욱 사랑하며 사는 것!, 이 명백한 진리를 따라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없는 중국의 기타 사정들을 위해 함께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타국에 있어서 춘절에 함께하지 못한 졸업생들과의 반가운 영상통화 ②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던 홈커밍데이



3 오랫동안 모인 졸업생들

중다일의 특별했던 홈커밍데이

매년 중국의 명절 춘절이면 중국 다일공동체의 홈커밍데이가 열립니다. 6년이 된 홈커밍데이는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기획에 의한 모임이 아닌, 자연스럽게 중국 다일어린이집을 졸업해 외지로 나가 살던 다일어린이집 졸업생들이 명절을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 춘절은 좀 특별했습니다. 작년 8월 다일어린이집을 훈춘시 민정국에 이양하며 다일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이제 돌아올 곳이 조금 막막해졌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년,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해 어디를 가도 다시 돌아올 곳, 내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던 다일어린이집이 막상 문을 닫으며 큰아이들의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훈춘의 중국다일공동체는 건재하며 한명이 돌아오더라도 중다일 애심회라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편히 쉴 곳이 있음을, 맞아주는 형님과 동생들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중다일 애심회 대표 림예화+한원철 부부를 중심으로 함께 열심히 모임을 준비하고 또 애심회 숙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김치를 새로 담그고 시장을 봐서 냉장고도 가득 채워놓고 졸업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춘절이 시작되며 외국으로 나간 졸업생들이 많아지며 예년보다는 좀 적었지만 중국 각지와 한국 등지에서 돌아온 중국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밥을 먹고 지난 삶을 나누는 풍성한 다일 홈커밍데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상처와 아름다운 추억, 근거없는 자신감이나 불안한 미래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가족, 우리 중국다일공동체 애심회 가족들의 풍성한 홈커밍데이 모습입니다. 지난 사진첩과 영상들을 꺼내어 함께 보고 거친 세상에서의 각자의 삶들을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올 홈커밍데이에도 역시 감사가 넘칩니다! 아하!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캄보디아 CAMBODIA

석미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① 김경미 후원자님과 함께한 특별한 미술수업 ② 미술 수업후 인증샷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 특별한 미술교실

살롬!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인사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아주 특별한 미술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미술교실은 다일교회 집사님으로 섬겨주셨던 김경미님께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시어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미술프로그램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집중하고,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조를 이루어서 다양한 색깔의 부직포와 종이들을 이용해 오리고, 붙이는 활동들을 함께 하였는데 너무나 신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가족들의 마음에도 환한 빛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미술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 중 예쁜 환경판은 프놈프라움 샘물다일유치원의 환경판을 새롭고 멋지게 탈바꿈 시킬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만든 알록달록 멋진 작품들이 게시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좋고, 두근거린다는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행복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아이들이 얻은 지식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고, 보람되게 사용하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마음모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뽀레야 예수!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③ 진지함과 열기가 넘치는 영어수업

다함께 외쳐요! A!B!C! 캄보디아의 핫(HOT)한 영어교실!

캄보디아는 건기에 접어들며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날씨도 꿈쩍 못할 뜨거운 열기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도서관에서 매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화~금요일간 진행되는 영어교실 때문입니다!

화,목(중등반), 수,금(초등반)요일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계획하고, 3월 중반부부터 걸음마를 떼어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적은 수강생, 초급반 레벨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의 아이들이 점차 점차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관심을 보이고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어 수강생이 더지만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영어교실에 함께 참여하고, 수업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어교실 뿐만 아니라 현재 캄보디아 다일공

동체에서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사랑을 전할 중창단도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실과 중창단 수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를 위해 희망을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꿈퍼 앞마당의 예배당 및 교육관 공간과, 프놈끄라움 센터 밥퍼 신축 주방공간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가운데 잘 건축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꿈퍼 예배당 및 교육관은 신축되어 지면서 꿈퍼의 전반적인 전력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전력 공급설비의 추가도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전력공급설비를 위한 재정이 원활히 공급되며, 모든 건축과정이 은혜가운데 안전히, 그리고 견고히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꾼쁘레야 예수!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일용할 양식

밥퍼(무상급식)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소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연 쌀입니다. 아무리 맛 좋은 반찬이 있을지라도 함께 먹을 밥이 없으면 앙금 빠진 빵이겠지요? 그만큼 쌀은 밥퍼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참 중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쌀!! 밥퍼는 1개월동안 필요한 쌀이 380kg입니다. 영양가 있고 맛 좋은 밥을 안정적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베트남에 주재중인 기업체에서 매월 쌀을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공간에 쌀이 가득할 때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기분입니다.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해 주고 있는 기업체가 어떤 곳인지 독자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선행활동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체의 내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밥퍼를 진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소요되는 급식비용을 현재 협력하고 있는 똌흥인민위원회 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매일같이 다양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안 중 외국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식품 배분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똌흥 지역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밥퍼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 지원해 주신 “쌀”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냥 “쌀”이 아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며, 관계의 디딤돌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 양국간의 작지만 큰 소통의 구심점 역할이 되길 소망합니다.



① 후원해주신 쌀로 차려진 일용할 양식



② 세계 여성의 날 축하잔치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3월 8일은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국이 1909년 '전국여성의날'을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1975년부터 유엔에 의하여 매년 3월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위키백과 참조]

여성들이 각자의 역할을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평등하게 대우를 받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자 밥퍼에서도 작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어머니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케익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수줍어 하시면서도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마냥 소녀와도 같았습니다. 율타리와도 같은 어머니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ARTISAN 베이커리에서 케익

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매일 같이 맛있는 빵을 후원해 주시는 ARTISAN 베이커리 황정태, 이은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필리핀 PHILIPPINES

이명현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누가 이웃이냐?

“살라맛 뵤 헤수스 (감사합니다. 예수님) ~~”

필리핀 다일공동체 세부 사명실현지에서 인사 올립니다.

다일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많은 후원천사님들께서 이 글을 받아보실 때에는 어쩌면 한국은 봄도 무르익고 초여름에 접어드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필리핀은 1년 내내 뜨거운 날씨라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필다일 유치원이 제7회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35명의 어린이들이 졸업식을 한다고 예쁘게 꽃단장한 차림으로 엄마 아빠 손잡고 나타나서 제법 긴장한 모습들이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교육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엄마 손을 놓지 못 해 울고불고 떼쓰던 꼬맹이들이 1년 동안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을 통해 키가 자라듯 지식과 마음도 쑥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젠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빈민촌 아이라고 해서 전혀 기죽지 않

고 당당하게 실력을 뽐낼 만큼 잘 컸습니다. 그 동안 필다일 유치원을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여 탑클래스를 차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 그럴 적마다 선생님들은 아주 흐뭇해하고 큰 기쁨을 느끼곤 하지요. 하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천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임으로.

우리 까만씨 다일커뮤니티 센터에서 불과 300미터 쯤 떨어진 이웃 파라다이스 마을에 심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몇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주민들은 집과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마을이 전소가 되어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이 완전히 폐허로 변하였습니다. 화마가 기승을 부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우리 센터로 피신하여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❶ 찬양과 율동으로 다 함께 즐거워하는 M.J.아카데미 자원봉사자들



② 부활절 썰나눔에 고마움을 표하는 이재민들

이튿날, 이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급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풀밭에 열기설기 세워놓은 간이 피난 천막을 찾아다니며 빵을 전달하면서, 빵 하나에 무슨 위로가 되랴 싶으면서도 주님께 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노애락喜怒哀樂 중에 희호와 락樂은 발달했는데 노怒와 애哀는 표현을 잘 못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저희가 무어라 표현할 수조차 없이 슬퍼서 혼자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부랴부랴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여 긴급 모금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과 필리핀 세부에서 후원금이 답지하였고, 부활절 아침에는 이재민 가정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썰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까만씨 마을 주민들도 모두 가난하여 그 쌀을 받고 싶어 했지만, 이 쌀은 파라다이스 이재민들을 위한 쌀이니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모두들 기꺼이 이해하였고 뿐만 아니라 쌀을 포장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서 즐겁게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부딪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어학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 세부의 M.J.아카

데미에서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옵니다. 이 어학원에서는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양 혁 원장님의 지도 하에 어학공부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과 인성교육까지 철저히 받고 있는데요, 매월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총출동하여 우리 센터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마침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줄 옷을 비롯하여 온갖 생필품들을 모아 와서 직접 나누어 드렸고, 빵도 만들고, 무릎 꿇고 배식도 하고, 또 간식 사먹을 돈을 아껴서 후원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 쏟아부으시는 양 혁 원장님의 M.J.아카데미가 날로 날로 발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16-517-589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네팔 NEPAL

부번 팀시나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① 난생 처음 동물원을 방문한 네팔다일유치원 어린이들과 학부모

찌이머시~

네팔다일공동체 부번 팀시나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밥퍼 뿐아니라 일대일 아동결연, 미싱교실, 호프스쿨과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팔의 새해는 4월에 있어서 학교들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 호프스쿨에서는 학년별 테스트를 하고 학교로 편입하는 아이들과 입학하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의 대안교육을 하고 있지만 열정적인 선생님들 덕분에 해마다 편입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법 글도 쓰게되고 그림도 그리게 되는것을 보며 역시 교육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유치원소식입니다~ 드디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처음 타는 친구들이 많아서 비닐주머니를 잔뜩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크로켓과 비슷한 써모사와 넘긴이라는 아이들에 인기 있는 간식과 삶은계란, 주스와 바나나등 배불리 먹을 것들을 준비하여 카트만두에 있는 유일한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마을에서 동물원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으면 20여분거리에 있지만 유치원 소풍이 아니면 평생 와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동물들엔 별 관심이 없고 길거리에 들어선 가게마다 아이들을 유혹하기 딱 좋은 동물모양 풍선들이 아이들의 눈길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한바탕 울음 땀방울을 부리고서야 지날 수 있었지만 이내 신기한 동물들을 보며 신났습니다. 엄마들의 손을 잡고 생애 첫 소풍

을 다녀온 아이들은 돌아오는 차속에서 잠이 들었지만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하늘에 오르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두팔촉에 지어지고 있는 고아원 건물도 지진이 다시 온 다해도 든든하게 하기위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재료들을 많이 넣어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1층 기둥을 쌓고 2층 바닥이 될 1층의 천정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집을 짓는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열정과 기쁨이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로 기쁨으로 지내는 네팔다일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아름답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네팔의 여러 사정으로 네팔다일공동체도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요청드립니다.

네팔다일공동체를 통해 10년을 이어오며 자란 아이들이 네팔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우간다 UGANDA

변창재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초등학교 7학년 프로그램을 마치며!

지난 소식지에서 소개해 드린 초등학교 7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3개월 동안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처음에는 서먹함으로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끝날 때에는 헤어지기가 아쉽고 서운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하고 싶은 내용을 파악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리차드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성경 내용을 쉽게 잘 지도해 주셨고, 신앙상담, 진로상담을 진행함으로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면서 아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물원 견학을 갔습니다. 우간다 정부에서 운영하며 빅토리아 호수 옆에 위치한 동물원인데 1년에 26만명이 다녀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동물들의 활동 공간도 비교적 넓게 설정이 되어 있어 아이들, 청

소년, 어른들이 모두 다 만족하며 관람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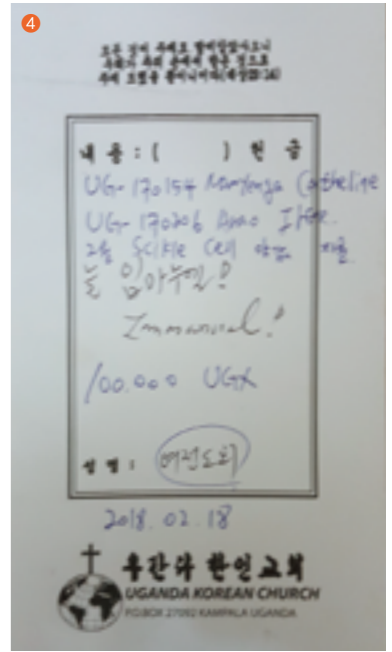
난생처음 동물을 보면서 신기해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기회들을 앞으로도 자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을 더 보강하여 올해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7학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기획 취지대로 아이들이 중요한 성장시기에 성경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서로 협동하는 법과 봉사하는 정신을 배우고, 양성평등에 대해, 인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며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Our Children, Our Hope!



① 잊지 못할 동물원에서의 추억



② sickle cell을 앓고 있는 아이린 ③ sickle cell을 앓고 있는 캐서린 ④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후원금

학교 밖 아이들의 입학, 그리고 Sickle Cell을 앓고 있는 소녀들!

다일공동체는 학교 밖의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맺은 MOU의 협약내용대로 지역리더 LC1(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키티코 초등학교 담당 선생님과 함께 스물 여섯 가정을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수단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HIV 보균자로 투병 중에 있어 11살임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소년, 아버지가 호수에서 조업 도중 익사하여 가계가 급속히 기울어졌고 어머니가 많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줄 수가 없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퇴한 소녀 등.

갓가지 사연으로 무상교육인 정부초등학교조차도 다니지 못해 보편적 초등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유니웰 오혜숙 생활 단식과 다일영성수련 벗님, 우간다 한인교회 집사님, 후원회원님들께서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현재 80여명의 아동결연이 새로이 이루어졌으며 16명의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놀고 있습니다. 귀한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원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학교를 가고싶다고 기도하는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

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질환 'Sickle Cell'을 앓고 있던 소녀도 결연 후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 한인교회 집사님께서 손을 잡아 주셨고 한인교회 여전도회에서는 Sickle Cell 두 명의 소녀들의 약 값을 매달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바자회 성금 후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대1 아동결연 문의]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조예슬 주임

[미주다일공동체] +1-770-813-0899 김고운 원장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말라리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탄자니아는 3~5월이 대우기철입니다. 3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리면서 5월까지 대우기가 이어집니다. 쿤두치 채석장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은 늘 말라리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만 대우기철이 지나면 더욱 어려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우기철이 아닌 평소에도 하루에 몇 명은 말라리아에 걸려 우리 스텝들과 함께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우기철이 지나면 말라리아 모기들이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각 가정에 가족용 모기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특히 흙집에 사는 어린이들은 대우기철이 지나면 집벽 곳곳에 주먹 크기보다 큰 구멍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모기장이 없으면 100% 말라리아 모기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한국 재단본부와 함께 '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쿤두치 마을 800여 가정에 모기장을 나눠주기 위한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금에



① 벽에 구멍이 뚫린 흙집

참여하시거나 한국 재단본부로 연락주셔서 800 가정이 넘는 모든 가정에 모기장이 배분되어 우리 아동들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② 모기장을 선물받고 기뻐하는 가족



③ 친구들과 봉사하는 네셀리아니 스테파노(오른쪽)

네셀리아니 스테파노의 후원천사를 기다립니다!

네셀리아니는 엄마, 외할머니, 큰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네셀리아니가 태어나기전 집을 나가 소식을 끊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가족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쿤두치로 이사왔지만 팍팍한 삶은 여전합니다. 엄마는 인근 시장에서 요리보조로 일해서 하루 2,000원 정도를 벌고, 큰이모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다 지금은 시력을 잃어 집에서 지내며, 외할머니는 플라스틱 빈병을 주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셀리아니가 아동결연을 통해 매월 쌀이나 옥수수 가루를 지급받고 학비와 학용품을 지급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매일 외할머니가 호프클래스 점심시간에 음식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네셀리아니와 가족들에게는 몇 년간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외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쿤두치에 작은 땅을 구입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철판으로 만든 안전하지 못한 임시가건물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은 든든한 벽돌로 만든 집을 갖길 소원합니다. 천막으로 대충 만든 화장실을 이용하며 언젠가 화장실을 짓기 위해 이미 땅도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잃은 외

할머니와 시력을 잃은 큰이모의 수입 없이 다일공동체가 주는 음식과 양식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벽돌집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달리기를 좋아하고 장차 선생님이 꿈인 네셀리아니의 집을 지어주실 후원천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족이 모두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실외)을 짓는데 한화로 400만원(4천불)이 필요합니다. 가난에 힘겨운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며 삶을 꾸리고 있는 네셀리아니가 선생님의 꿈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녀와 가족들의 후원천사가 되어주세요!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미국 AMERIC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대·청·밥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봉사단) From U.S.A 을 응원합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멀리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날아간 자랑스러운 미주 대·청·밥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봉사단) 최유진 (Yu Jin Choi) 학생과 유진학생의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코네티컷주(CT state), 파밍턴(Farmington) 에 있는 Miss Porter's School 스쿨 11학년 최유진 학생은 2017년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 이동 밥퍼를 위한 톡톡이(현 지식 집칸이 달린 오토바이) 기금 마련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 (이우재 군)를 통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귀한 사역을 알게 되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다일공동체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였고, 어렵게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밥퍼 봉사를 하기 위해 학기 중이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어 미국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봉사하고 하루 만에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너무 짧게 봉사 와서 죄송하다며 다음에 또 오겠다는 유진 양과 어머니의 말씀에 가

슴이 따뜻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유진양이 보내온 장문의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나누고 싶어 유진양의 동의를 받아 편지와 사연을 공유합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봉사를 했던 미국 코네티컷주, 파밍턴에 있는 Miss Porter's School 스쿨을 다니는 최유진 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우재를 통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이동 밥퍼 톡톡이 모금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후원이라고 생각이 되어 모금함 후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동 밥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 직접 밥퍼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재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홍보 자료도 만들고 학교에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모금 캠페인을 5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아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자주했던 경험을 살려 김치볶음밥이랑 디저트로 호떡을 판



① 캄보디아 프놈펜 밥퍼를 방문한 최유진 학생과 어머니



② 캄보디아에서 밥퍼 봉사중인 최유진 학생(사진 왼쪽)고 어머니(오른쪽) ③ 눈을 맞추며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최유진 학생

매하는 아이템을 정하고 모아뒀던 용돈으로 재료를 사고 모금 판매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름이 튀어 약간의 화상도 입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며 힘들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제가 만든 한국음식을 미국인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보람을 느끼며 모금활동을 하였습니다. 판매를 통해 \$200불의 후원금을 마련했지만 더 많이 모금을 해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봄 방학으로 한국에 들러 떨어지는 마음으로 아빠와 아빠의 선배님들께 밥퍼와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알리고 후원을 부탁드려서 \$1070의 후원금을 더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한국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모아 와서 짧은 일정이지만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지부장님께 후원금을 전달 할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직접 밥퍼에 가서 정성어린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짧지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매일의 밥퍼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에, 그 이웃들을 돕고 있는 분들이 한국의 NGO라는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밥퍼에 오는 어린이들이 커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또 발전하길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와서 봉사를 하며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감사' 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또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계획해서 다시 한 번 캄보디아를 찾아 봉사하며 아이들과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봉사를 다녀온 유진학생과 나는 대화에서 유진학생은 오히려 본인이 배운 것이 더 많아 감사하다며 학교에 돌아가서도 계속하여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한참 공부에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시기인데도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유진 학생의 소식을 읽고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도전을 받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의 대·청·밥 (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봉사단)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미주다일공동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70-813-0899 김고운 원장. (봉사 참여 후 credit을 위한 volunteer certification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다일공동체 단식기도수련 안내

목안리 다일공동체 '다일 평화의 마을(다평마)'에서는 2018년 2월부터
단식기도수련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생활단식과 함께 몸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전인치유적인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영과 육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을 정중히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목안리 다일공동체로 오십시오! 기독교 전통적인 기도수련과 함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드리며 동시에 깊은 영적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단식기도수련은 매주 개최됩니다.

주요 강사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
다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연수 대표
설곡산 다일공동체 원장	김지훈 목사
목안리 다일공동체 원장	김혜경 목사

문의

031 584 7478(목안리 다일 평화의마을)
010 8948 8271(목안리 다일공동체 김혜경 원장)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목안로 902번길 17-3
(다일 평화의마을)

다일DTS훈련생을 모집 공고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성생활, 예배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나누며 섬기는 봉사생활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의 정신과 영성으로 세워질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습니다.

1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분들 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다일공동체의
해외사역지로(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 파송되어 선교사로도 헌신할 기회도 있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다양한 영성수련과 함께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다일천사병원에서의 노동기도, 목안리 DTS훈련원에서의 예배의 삶을 통해 훈련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지원의사를 전달하여 주시면 소정의 지원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자격

19세 이상 ~ 55세 미만

문의

031 584 7478(다일DTS훈련원)
010 8948 8271(다일DTS훈련원 원장 김혜경)

다일DTS훈련원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목안로 902번길 17-3
(다일 평화의마을)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
다일DTS훈련원 원장	김혜경 목사





대한민국 KOREA

최홍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① 변함없이 밥퍼를 찾아주신 4050 수도권산악회 회원분들 ② 밥퍼 봉사 100회를 달성한 수도권산악회 회원 여러분들

십년을 이어온 사랑

2008년 처음 봉사를 시작하며 밥 한끼를 먹기위해 줄을 서가며 많은 분들이 한끼를 해결해야 함에 눈물 흘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매달 밥퍼에 인연이 되어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냉정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밥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노숙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게으르고 나태함에 거리를 배회하지 않을까?라는 편견에서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눔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잔반 처리팀, 현란한 썰기의 칼기술 소유자들과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을 맡아 하고 있는 반찬팀, 준비팀, 설거지팀, 배식팀 등등..

매번 함께 동참하여주신 미켈란님, 범이님, 파니님, 이찌꼬님, 밝은미소님, 신청파님, 뱃사공님과 늘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의 손길이 도움이 되어 뿌듯함과 감사함을 다시 알게해주는 시간들이 어느덧 10년이 되었고 100회가 되었습니다. 매번 봉사 참여는 할수 없지만 기부 동참을 하여주신 리스본님, 청아한님..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또 내년에도 십년후에도 이자리에 오늘처럼 함께 봉사 참여를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한 아름다운 분들... 무심코 하게 된 선한 일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작은 선행들이 모이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겠지요. 삶의 모퉁이마다 되살아 날 교훈이나 지침서는 아니지만 봉사라는 소중한 가치있는 만남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이세상 처음 이루어 졌을때 이미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지요. 오늘의 봉사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곳에서부터 행복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밥퍼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라. 우리의 두손은 하나는 나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라는 것을.....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의 한 귀절을 읊조리며 이땅에 밥끓는이 없을때까지 우리는 여기 밥퍼에 밥을 주는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성자: 4050 수도권산악회 회장 지윤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오병이어 광고 ※

밥 한그릇의 나눔, 이웃을 행복하게 해요

며칠 전 신문에 쪽방에서 열흘 넘게 굶다시피 한 한 일용직 노동자가 쪽방내 공동주방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본 이웃 방 주인이 불을 끄러 나오자 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동아일보 2.6) 겨울철 일용직으로 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제대로 끼니를 잇지 못해 굶주림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욕하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웃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분노에 희생양이 된 같은 쪽방촌 이웃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찔렀던 이웃의 마음이 깊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죽 배가 고프고 그로 인해 너무나 깊은 분노와 좌절감에 될대로 되라. 누구든 죽여버리고 싶다는 몸부림을 쳤을까 하며 그의 마음을 애써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한 독자가 "그렇게 배고프면 무료 급식소라도 찾아가지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고 댓글을 달자 또다른 독자는 "무료 급식소가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멀어서 가지 못했을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끼의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밥퍼나눔운동본부에는 600여명의 배고픈 이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날마다 600명씩 청량리지역 뿐 아니라 먼길을 마다않고 추운 겨울 굶주림을 피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의 손길이 이 분들을 살리십니다. 매달 만원으로 매일 600명의 이웃들에게 추위를 이기는 따뜻한 한끼를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KOREA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곽OO님 천국환송 프로그램 (웰다잉)



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신 고 곽도현(가명)님

다일작은천국에서는 노숙자들의 마지막 임종의 날을 외로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생활 했던 입소자들과 직원들과 마지막 날,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종 준비에 있어 살아생전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가족과 연결되어 용서와 사랑을 받아 슬픔을 나누고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곽도현(가명)님의 천국환송 프로그램(호스피스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곽도현님께서 돌아가시기전 작성하신 삶의 이야기를 지면을 빌어 전합니다.

IMF 이후 계속되는 경제 불안 속에서 재직 중이던 회사가 운영이 힘들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인력시장에 뛰었고, 새벽같이 나가 일당을 벌기위해서 지도관에게 음료수도 사다드리고 눈을 한번 마주쳐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수 차례였습니다. 운이 좋아 일을 할 수 있는 날에 받은 돈으로 찜질방이나 여인숙에서, 돈이 떨어지면 인근 버스터미널, 병원 응

급실에서 잠을 청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자살시도를 했지만, 눈을 떠 보니 다시 그 자리였습니다. 냉정하고 냉혹한 세상을 원망하면서 기떨 곳이라고는 술과 담배 뿐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와 연락이 닿아 택시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벌었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성공을 꿈꿨지만 직장동료가 “돈을 몇 배로 불려서 주겠다.”고 하여 전액을 주었지만 도박을 하여 돈을 다 잃었으니 갚을 돈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배신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희망을 갖고 택시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날부터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점점 출근횟수와,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택시 미수금을 내지 못하고 빚진 상태로 도망 나와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공원에 위치한 화장실 가는 길에 다시서기 무료의료서비스를 해준다고 간판을 봤습니다. 도움



② 고 광도현(가명)님의 천국환송식을 준비하는 다일작은천국의 임직원들

을 구하고 싶었지만 금전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 방법이 없어 힘들어하는 도중에 용기 내어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빌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거절하고 도망가기 마련인데 직접 전화를 해주시고 덕분에 연결이 되어 다시 일어서기 무료 의료진 선생님들이 직접 데리러 오셨습니다. 차에 탑승하고 저의 모습이 사라 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주머니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다시서기 의료진을 통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몸의 안정을 취하고 퇴원 후 다시서기센터를 찾아갔지만 도울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 다른 시설에 의뢰를 보내 그곳에 입소하여 6개월 생활하다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암을 이겨내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과 병원과 가까운 시설을 찾던 중 다일작은천국인 노숙인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소생활을 하시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고, 있는 빛까지 다 갚겠다는 의지를 표하셨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통해서 건강이 괜찮아 지셨지만, 추가적으로 간까지 전이가 되어 간암까지 함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식사를 하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시면서 힘겹게 버티시다가 3개월 후에는 의식까지 흐릿해지면서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원 생활 중 사망하셨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연고자를 찾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다일작은천국은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천국환송을 준비합니다. 인격적인 죽음... 웰다잉... 무연고자로 죽을 수 밖에 없고, 노숙인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싫어서 끝내 가족과 연락을 두절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은 본인이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가족을 미리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시설장과 스태프들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사망 이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병원과 구청의 무연고담당자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애쓴 덕분에 연결이 되어 마침내 15년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의 소식을 아드님께 전할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사업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죽음으로 돌아 오게 된 사연, 아내는 15년 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애증으로 기다렸고, 아직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부모님도 계셨고 미국에서 큰형과 막내동생도 달려 오셔서 온 가족이 비록 돌아가신 후였지만 뒤늦게라도 화해하고 따뜻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보살펴 준 시설에 무한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소식에 반감 충만한 반응을 보이던 아들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천국환송 하는 길, 아들과 형제들, 가족장으로 화장까지 책임을 지면서 화해를 하는 행복한 장례식...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만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천국환송식이었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환송식을 치러드리는 다일작은천국의 사연입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십자가의 길로 떠나는 하루 순례

십자가의 길 묵상은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기도수련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사건, 부활이 각 장면별로 구성된 순례기도입니다.

각 장면 안에 묵상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느껴보고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일공동체 십자가의 길은 성서를 기반으로 가장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 14처로 구성하였고 박창용 작가님의 1년이 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찾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삶 속에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진지알아차리기

다일공동체에서는 식사시간이 없습니다.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단순히 밥을 먹어 치우는 "식(食) + 사(事)"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진지하게 우리를 위해 자기자신을 내어준 진지들을 만나고 그 진지들과 대화하며 진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인의 수고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진지알아차리기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꽃차와 함께하는 영적상담

설곡산 다일공동체는 사시사철 꽃이 피는 꽃동산입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이 꽃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따고 닦고 말리고 잘 담아서 많은 이들이 이 꽃을 오래오래 즐길 수 있도록 꽃차를 대접해드립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따스한 차를 함께 나누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다일공동체 사역 소개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로 순례를 오신 분들은 누구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오신 분들과 따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면 갈보리 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연락처와 찾아오시는 길

설곡산 십자가의 길로 떠나는 하루 순례는 하루 동안 기독교 전통 묵상 수련인 십자가의 길과 예배, 진지알아차리기와 꽃차 나눔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설곡산 다일공동체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퍼나눔운동본부



시오칠 동기회

시오칠 동기회에서 밥퍼를 찾아오셨습니다. 퇴역 장교분들의 모임인 시오칠은 군인 출신답게 각자 맡은 역할에서 힘 있고 절도있게 봉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밥퍼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봄에 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하여 주셔서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준 시오칠 동기회분들 앞으로도 밥퍼와 함께 따뜻한 나눔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예일대학교 가스펠합창단

예일대학교는 미국 뉴헤이븐에 있는 명문대학교입니다. 한국인 2명을 제외한 18명은 모두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언어 문제로 봉사활동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점심 식사 전 가스펠 합창단이 준비한 멋진 노래로 시작하였고 한 동안 어르신들의 큰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일대학교 학생들의 파이팅 넘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몇몇 어르신들은 “땡큐”라고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예일대학교 가스펠합창단 앞으로의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김나영 학생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3학년인 김나영 학생은 중학교 3학년때 밥퍼 봉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오고 있는 학생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감사하다”는 서툰 표현과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더 열심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창 비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시간을 내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어르신들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취업을 하게 될텐데 일을 하면서도 시간날때마다 봉사를 할 생각이랍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LOTTERIA

베트남의 대표적인 한국 기업체인 LOTTERIA는 매월 1회 봉사에 참여해주심과 동시에 후원을 해주시고 있는 기업입니다.

LOTTERIA로고가 삽입된 앞차마까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밥퍼활동시 착용해주시는 등 남다른 밥퍼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퍼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면 늘 ‘YES!!!’를 외쳐주시는 이웃사랑 실천기업인 LOTTERIA기업이 더욱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강수, 서희숙님

베트남으로 여행을 오신 이강수, 서희숙님이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강수, 서희숙님은 밥퍼를 건축할 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건축비를 후원해주신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다른 기온차로 인해 힘드시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 참 좋다고 하십니다.

손발을 걸어 부치시고 배식을 하시는 등 식판과 식기구를 광(光)이 나게 닦아 주셨습니다.

두분의 섬김이 따뜻한 온기처럼 오랫동안 밥퍼에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간다



파배기와 도너츠로 전하는 사랑

탄자니아에서 제빵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준비하시는 성기준 님과 아들 성형기 군이 방문하여 키고, 키티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900개가 넘는 도너츠와 우간다 교민들을 위해 한인교회에서 300개가 넘는 파배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너츠와 파배기의 맛에 우간다의 아이들과 교민들 모두 입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오로지 빵을 만들어 기술자로 살아오신 성기준 님, 탄자니아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 응원합니다.



미래의 사회복지사 김재환 형제님

충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김재환 형제님이 키티코 초등학교 418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 제대 후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여 우간다에 3개월 동안 방문한 김재환 형제님은 이동해 선교사님이 전도사 시절 섬겼던 교회 담임목사님의 아들로 그 당시 1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장성하여 우간다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미래의 사회복지사 김재환 형제님을 축복하며, 함께해주신 이동해+김은희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작은천국



배화여대 봉사 동아리 How팀

배화여자대학교 봉사 동아리 HOW팀 학생들이 이번달에도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올텐데 다일작은천국에 봉사 와주는 그마음부터가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에 봉사온 배화여대 학생들은 3명의 친한친구들이 함께 와주었습니다. 오자마자 난생 처음해본 텃밭 가꾸기를 진행했는데, 잡초를 뽑고 땅을 거르고 돌을 치우는 일을 시켰는데도 어린 친구들이 힘들텐데 힘들단 말 한마디 안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이 뚝뚝 뭉쳐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시 치유 프로그램 도경원 선생님

도경원 선생님은 다일작은천국에서 이번달부터 처음으로 공모사업 시 치유 프로그램을 맡으신 선생님입니다. 감사료를 받으시면서 다일작은천국 어르신들을 섬겨주시고 계시지만 한달에 한번씩은 봉사를 오고 싶다고 감사한 마음을 받아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시를 읊어 주시고 또 어르신들께 좋은 말씀까지 전달해주시니 더욱 더 행복한 다일작은천국 가족들이 되는 것 같아 저희의 마음 또한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2018년에도 다일작은천국과 함께 해주시고 내년, 내후년에도 영원한 봉사자로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도경원 선생님!



취업공업고등학교 자원봉사팀

취업공업고등학교는 2017년에도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꾸준히 오는 학교였습니다. 2018년에도 변함없이 다일작은천국에 인연이 닿았습니다. 취업공업고등학교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취업 진로교육과 기본이 탄탄한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선도하여 창의인성교육과정 100대 학교 취업기능강화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선취업 후진학의 명문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남학생들로 이루어져 씩씩하게 봉사한 취업공업고등학교 자원봉사팀은 지하실 창고로 내려갔는데 무거운 짐도 씩씩하게 들어서 옮기고,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해주었습니다. 힘든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 참 강해보였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취업한다는데 취업 잘되길 바랄게요! 다일작은천국이 응원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본원)



양주예향교회

2015년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KCOC단원으로 사랑의 나눔을 함께 실천했던 홍다나 자매가 섬기고 있는 양주 예향교회에서 비전트립으로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성경학교와 더불어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섬기는 스텝들을 위해 예배사역도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짧은 기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저녁까지 밥퍼 섬김과 더불어 성경학교 준비 일정 등으로 숨 돌릴 틈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이 가득 담긴 햇살 같은 미소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위해 마음을 나누어 주신 예향교회 가족들께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뵈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곤 뽀레야 예수!



큰은혜교회

작년에 이어 큰은혜교회 가족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만들기, 복음전하기 어린이 사역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학생과 여성(어머니)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열심히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스룩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잔치와 프놈끄라움 지역 쌀 나눔 행사도 준비해 주시어 캄보디아에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의 나눔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센터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더위, 모기와 싸우는 일정 가운데서도 일체 은혜 감사임을 고백해주신 큰은혜교회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곤 뽀레야 예수!

캄보디아 (프놈펜 지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로 방문하셨습니다. 고등학생들답게 활기 찬 모습으로 밥퍼 봉사, 위생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또한 밥퍼 봉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공연까지 준비해 주셔서 밥퍼 준비하는 동안 센터에 분위기가 활기 찼습니다. 밥퍼 봉사를 마치고 서로 소감을 나누었는데 서로서로 이렇게 좋은 밥퍼 봉사 오게 되어서 기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봉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보여 줄 공연까지 준비 해주신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한 크메르뱅크

신한 크메르뱅크에서 전체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로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과 위생에 필요한 수건 샴푸 등을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신한 크메르뱅크 직원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밥퍼봉사를 해주셨고 또한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아이들을 이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주신 신한 크메르뱅크 임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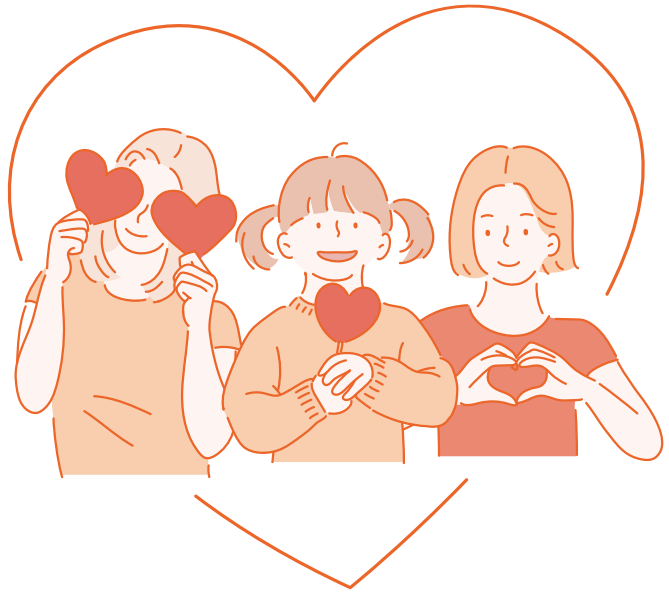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팀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지부로 방문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가야금으로 많은 음악공연을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한듯 음악에 집중 할려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특히 아라뽀야를 연주할 때 아이들도 덩달아 신나서 같이 부르는데 온 센터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키보드(피아노)도 후원해 주셨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까지 나누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시고 밥퍼 배식까지 해주신 뷰티풀 마인드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밥퍼나눔운동본부 신규후원 내역

2018. 2. 11 ~ 2018. 4. 5

후원금

시오칠동기회, 교세라정공

신규 정기후원 회원명단

2018. 2 ~ 2018. 3

㈜거룩한일오상, 3559, OHKYESOOK, 강승구, 강신틸, 강영신, 강옥석, 강정규, 강현철, 거산피앤피(주), 고석조, 고촌교회, 곽우현, 곽은경, 곽태연, 권미숙 권민성, 권용배, 굴현교회, 금호교회일동, 김개동, 김경진, 김관진, 김규원, 김나연, 김나은, 김미진, 김민최순이지박혜, 김병진, 김선우, 김수린, 김숙자, 김순이, 김연주, 김영애, 김예나, 김옥량, 김재룡, 김정심, 김주연, 김충성, 김한길, 김형준, 김혜선, 노금순, 노영서, 노인숙, 노종섭, 대양씨앤피김용만, 도경원, 루디아 신우회, 민양운, 박선미, 박소연, 박수경, 박수애, 박승하, 박인옥, 박재욱, 박제하, 박지혜, 박호연이유미박시은, 배정남, 변수빈, 부활절계란, 서선희, 서승표, 석미자, 소지영, 송말례, 송정애, 시오칠동기회, 신연숙, 신연희, 신은순, 아너스클럽, 안병걸, 안병규, 안상란, 안성욱[안수영], 안소이, 안재경, 안지현, 양은아, 엄보결, 오대석, 오세준, 오순정, 오영빈, 오유진, 오은영, 오인숙, 오혜숙, 울나주광문박, 우순희, 유귀례, 유다연, 유양금, 유현순, 유혜련, 윤서연, 윤세나, 윤인성, 윤혜정, 윤호선, 의왕중학교2-1, 이근숙, 이기환, 이도상, 이명규, 이명숙, 이명자, 이미경, 이미순, 이복숙, 이성준, 이수현(성대), 이순연, 이승천, 이영근, 이영섭, 이옥선, 이왕재, 이용택, 이재호, 이준석, 이진아, 이창민, 이현경, 이현진, 이혜령, 이혜영, 이혜정, 이희선, 임경섭, 임명희, 장기수, 장승빈, 장은지, 장은혜, 재단법인 마이더스행복재단, 전영희, 전은경, 전은희, 정성호, 정소임, 정영미, 정유리, 조성기, 조숙희, 조연철, 조영희, 조용순, 조원진, 조일연, 조흥수, 종기최엄, 주식회사 그레이스벨, 주영광교회, 천미정, 천혜정, 최경순, 최성희, 최영신, 최영옥, 최인화,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티아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생명,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카드, 한국교세라정공, 한독화장품, 함석주, 해당코디리마을본점, 허내임, 홍경자, 홍미희, 홍석정, 홍세미, 홍승연, 황다혜, 황은현, 황이진, 황주, 효실교회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캄보디아

2018. 2. 11 ~
2018. 4. 5

후원자

KT Travel, Rocky Cafe,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고성 삼산교회 김종오 장로, 광명계영성교회, 굴현교회,
김은영, 김혜경, 대박, 리얼&조홍광, 문정동 좋은교회, 뷰티풀 마인드, 사이공스타, 생물교회 이종관 목사,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 설꽃(영성수련 벗님), 신한 크메르뱅크, 양손가득 사랑을 교민감,
엄지영,이두영(예향교회), 오낙영 대사, 이명애, 인천시 아동복지협회, 정건국, ㈜비채움 강지원,
㈜한들 대구지점장 주대범, 천안중앙교회, 충현선교회, 카도, 큰은혜교회, 프놈그라움수원마을 후원회,
프놈펜 제일교회, 하나투어(강민), 하나투어(하성숙), 하나투어(허복경), 홍콩감리교회

후원물품

[식료품] 김동욱, 서귀포시청 해외봉사단, 신한크메르뱅크, 예수선교합창단, 큰은혜교회, 프놈펜 제일교회
[의류 및 신발] 추석현, NYC ITE COLLEGE
[학용품] 모두투어 부산 김영철, ㈜비채움
[잡화] 김동욱, NYC ITE COLLEGE
[의약품] 큰은혜교회
[생필품] 큰은혜교회
[음악, 체육용품] 강병두, 뷰티풀마인드, 서귀포시청 해외봉사단

미국

2018. 2. 11 ~ 2018. 4. 5

구미영, 신희, 신필수,
오예숙, 한경숙,
Myoung Podyma

우간다

2018. 2. 11 ~ 2018. 4. 5

후원금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성기준, 최양숙

후원물품

관용배(바나나, 비스킷, 막대사탕),
배종호(비스킷, 막대사탕)

베트남

2018. 2. 11 ~ 2018. 4. 5

후원금

A PLUS, LOTTERIA, NAHAL,
POSCO DAEWOO INTERNATIONAL,
VEGAS, 권민혁님, 기업은행,
닥터카, 대장금,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산상선, 오희승님, 우혜선님,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후원물품

ARTISAN(빵), E-VIET SOLUTION(쌀),
고세인님(선풍기),
우혜선님(후라이팬),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중국

2018. 2. 11 ~ 2018. 4. 5

후원금

김성재(Obey & Praise),
김래현, 김송자,
김학용

탄자니아

2018. 2. 11 ~ 2018. 4. 5

이해명, 양다혜

후원 안내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 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곡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 예금주: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 예금주: (사)데일리 다일

네팔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45
베트남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16
우간다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61
중국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03
캄보디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32
탄자니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58
필리핀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29

· 새로운 다일공동체 해외분원 계좌입니다.
사단법인 데일리 다일로 다시 태어나는
다일공동체 해외분원을 응원해주세요.

미주다일공동체 후원문의

· check 후원

Pay to the order: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

· Debit/Credit card/ACH 후원

미주다일공동체 오피스 770-813-0899
/usa@dail.org로 문의해 주세요.

· 후원하신 후원금 전액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usa.org)에서도 회원가입후
후원신청 가능합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 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1:1 해외아동 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쌀 10kg

월 3만원 _____ 구좌

☐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기타

월 _____ 원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 기타

_____ 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주민등록 앞 번호

연락처

☐ SMS 수신 동의

이메일

☐ e-mail 수신 동의

주소

☐ 우편물 수신 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 5일

☐ 15일

☐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 번호

(남 / 여)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인바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리대로 57 6층 후원관리실 fax 02-2247-8004  다일공동체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다일공동체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 📍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 📍 1247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 ☎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 📍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17-3
- ☎ 031-584-7478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 📍 St N'63 Tour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 📍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e Penh, City, CAMBODIA
- ☎ +855-17-764-440

중국 다일공동체

- 📍 133300 中国吉林省琿春市西城名苑53栋1单元601, 602
- ☎ +86-433-753-8004

우간다 다일공동체

- 📍 P.O Box 85 Kisubi, UGANDA
- ☎ Tel. +256-771-072-382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 📍 Manoha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 ☎ +977-98494-58330
+977-98413-84069

포카라 지부

- 📍 9 Shivatol Buspark Pokhara Kaski, NEPAL
- ☎ +977-98607-76685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 ☎ +63-916-517-5892

까비떼 지부

- 📍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 1 Dasmarinas, Cavite 4114, PHILIPINES
- ☎ +63-927-560-7346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 ☎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 📍 21 đường Mỹ Giang 2B, Khu phố Mỹ Giang 2,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 📍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 ☎ +1-770-813-0899
(Fax) +1-770-813-0133
- 🏠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 📍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 +1-416-824-4831

아름다운 세상찾기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4박 5일)

191기/ 7월 9일-13일

192기/ 7월 30일-8월3일

193기/ 10월 22일-26일

194기/ 12월 10일-14일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4박 5일)

51기/7월 23일-27일

52기/8월 13일-17일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5박 6일)

26기/7월16일-21일

27기/8월6일-11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단체사용신청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031-585-6478, 031-585-2004, 010-3671-8014

홈페이지 sg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네비게이션으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에 스타렉스가 출발합니다.
탐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